

#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분석

## An Analysis on the Recognition of Husband and Wife about the Husband's Authoritarian Communicatio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金順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柳京希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 Soon Ok, Kim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Course : Kyoung Hee, Ryu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degrees of husband's and wife's recogni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degrees about the husband's authoritarian communication, to develop the typology of recognition of husband and wife and also to find group differences caused by the personal variables, spousal variables, family-environmental variabl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328 married couples living in Seou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degrees of husband's and wife's recognition about the husband's authoritarian communication were not high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usband's and wife's recognition.

2) The recognition of husband and wife about the husband's authoritarian communication is classified into 5 types; type of high agreement of both husband and wife(34 married couples), type of middle agreement of both husband and

wife(167 married couples), type of low agreement of both husband and wife(26 married couples), type of disagreement with husband's high recognition(51 married couples), and type of disagreement with wife's high recognition(50 married couples).

3) The variables which have significance on the types of recognition of husband and wife about the husband's authoritarian communication were husband's educational level, husband's birth order, husband's self-esteem, husband's alienation, husband's sex-role attitudes, wife's self-esteem, wife's alienation, the rights of decision-making between couples, household income, subjective social class, authoritarian behavior of father of husband.

## I. 서론

### 1. 연구목적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 가족구조는 확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적인 핵가족으로 변하여 부부의 애정과 친밀성은 가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근간이 되고 있으며,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은 구조적으로는 핵가족화되었으면서도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확대가족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여러가지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역할 규범 역시 많이 완화되었으나, 아직까지 남녀의 성적 분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가부장적 차별원리에 의한 수직적 부부관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영주, 1994:31).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도 반영되어 한국 남편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감소되는 듯 하지만 아직 주된 의사소통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성자, 1985; 채수옥, 1986; 김은심, 1988; 서수경, 1988; 이창숙, 1988; 이정순, 1991).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며, 어지러움, 머리아픔, 기운이 빠짐, 귀울림소리, 숨이 차거나 막힘 등과 같은 부인의 정신·신체 증상에 영향을 준다(김은심, 1988:50). 또한 '동등한 의사교환'은 평등한 부부관계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한경혜, 1994:24),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지양되

어야 한다.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부터 파악되어야 하는데, 의사소통을 포함한 상호작용은 행동특성 자체보다 행동에 대한 상호간의 인지에 의하여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의 인지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부장제 규범은 수직적인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이 부인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것은 아직까지도 남편들의 의식에 남아있어 자신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이 남편다움에 위배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므로써 남편들은 자신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종속적 위치에 있던 부인들은 기존의 권위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평등적인 의식으로의 변화가 남성들보다 빨라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더욱 민감하게 인지하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시각과 성차별 교육으로 인하여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인지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의 인지정도 및 그 차이를 분석하여 부부간의 인지일치여부를 파악한 후, 부부의 인지정도에 기준하여 부부간의 인지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인지유형에 따라 개인적 변인, 부부간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이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의 인지정도는 어떠하며, 부부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은 부부의 인지정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3)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에 따라 개인적, 부부간, 가족환경적 변인들은 차이를 나타내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의 특성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특징인 권위주의는 권력의 유무에 따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나타나는 비합리적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家父長制 가족구조에서의 신분서열적 인간관계, 長幼有序的 秩序존중, 男尊女卑사상 등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영복, 1991).

권위주의적인 인간은 세상이 불평등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曾良中淸司, 1983:165), 자신보다 우월한 자에게는 잘 순종하고 반대로 약자에게는 지배자의 심리를 지닌다(고영복, 1991, 102-103; 小林久高, 1989:392).

이러한 비합리적 권위에 의한 권위주의 성격은 의사소통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權威主義的 意思疏通 특성은 다음과 같다(송성자, 1985; 이창숙, 1988; 이정순, 1991).

- (1) 다른 사람의 주장이 옳아도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 (2)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 (3) 상하관계에서 이야기한다.
- (4) 체면을 차려서 이야기한다.
- (5)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
- (6) 상대방의 복종과 충성을 요구한다.
- (7) 화를 잘내고 큰소리로 말한다.

- (8)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 (9)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 (10) 불평불만이 많다.
- (11) 일이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태도로 말한다.
- (12) 냉담하다.
- (13) 융통성이 없다.
- (14)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 (15) 이야기 도중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 그냥 말을 끊어 버린다.
- (16) 잔소리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다.
- (17) 비사교적이다.
- (18) 상대방의 단점이나 실수를 추궁하고 따진다.
- (19)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20) 황설수설 알아듣기 어렵게 말한다.

한국에서는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이 부인들보다 남편들에게서 더 나타나는데(송성자, 1985; 채수옥, 1986; 김은심, 1988; 서수경, 1988; 이창숙, 1988; 이정순, 1991), 그 이유는 남편이 부인에 비하여 계층서열의식이 더 강하고, 체면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송성자, 1985:126).

### 2.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에 따라서 개인적, 부부간, 가족환경적 변인이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인지유형과 관련된 변인이 고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또한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권위주의 성향이 반영되므로 권위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살펴보기로 한다.

#### 1) 개인적 변인

권위주의 성향은 연령과 정적관계를, 교육수준과 부적관계를 나타내는데(김재은, 1988; Adorno et al, 1950), 교육정도가 높은 집단이 표현적이며 개방적

인 의사소통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원효중, 1984; 서수경, 1988; Hawkins & Weisberg & Ray, 1977). 그리고 한국의 가부장제 가족에서는 가족성원간에 손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여러층의 신분서열이 엄격히 존재한다는 점(이광규, 1982)을 고려할 때 차남 이하보다 장남이 권위주의 성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권위주의 의식이 높아지며(Boshier, 1969; Larsen, 196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수경, 1988; 류경희, 1994). 또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높은 정도의 권위주의를 나타내고 있어서(문기춘, 1987) 자기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개인의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행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여(Bernard, 1976; Araji, 1977) 남성역할과 여성역할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경희, 1994).

이상과 같이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수준, 출생순위, 자아존중감, 소외감, 성역할태도를 본 연구의 개인적 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 2) 부부간 변인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남편주도가 많을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류경희, 1994)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의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친숙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효중, 1984; 서수경, 1988; 도미향, 1990).

이상과 같이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결혼지속년수를 본 연구의 부부간 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 3) 가족환경적 변인

Frenkel Brunswik(Christie, R. & Marie Jahoda, 1954

재인용)와 문기춘(1987)은 사회경제적 계급이 낮을수록 권위주의 정도는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경희, 1994).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친숙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1990). 한편 어릴 때의 부모와의 경험에서 부모자녀관계가 비합리적 권위-의존관계였을 때, 그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압도되어 복종하게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적의를 품거나 반항하게 되고,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曾良中清司, 1983:164~165; Champney, 1939; Lazarus et al, 1951; 김재은, 1968 재인용). 따라서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을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고(류경희, 1994), 자신이 아동기에 경험한 권위적 훈육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를 훈육하게 된다(Byrne, 1965; 김재은, 1968 재인용).

이상과 같이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사회계층, 가계소득,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본 연구의 가족환경적 변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은 주 변인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과 관련변인인 개인적 변인(남편과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출생순위, 자아존중감, 소외감, 성역할태도), 부부간 변인(결혼지속년수, 부부간 의사결정권), 가족환경적 변인(가계소득, 주관적인 사회계층,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다. 각각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척도

송성자(1985), 이창숙(1988), 이정순(1991)의 연구를 토대로 12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12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 )은 남편응답의 경우 .83, 부인응답의 경우 .87이었다.

## 2) 자아존중감척도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SEQ:Self-Esteem Questionnaire)를 토대로 9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9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 )은 남편응답의 경우 .83, 부인응답의 경우 .78이었다.

## 3) 소외감척도

문기춘(1987)의 연구를 토대로 11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11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 )은 남편응답의 경우 .74, 부인응답의 경우 .78이었다.

## 4) 성역할태도척도

Osmond & Martin(1975)의 Sex-Role Attitudes Scale (SRA)을 토대로 8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로 평가하게 된다. 성역할태도에서 전통적인 태도는 남성역할과 여성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대적인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공유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8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 )은 남편응답의 경우 .73, 부인응답의 경우 .67이었다.

## 5)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척도

R.Blood와 D.Wolfe(1960)의 연구를 바탕으로 7개 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주도형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7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 )은 .72이었다.

## 6)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척도

송성자(1985), 이창숙(1988), 이정순(199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17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작성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17문항의 내적일관성(Cronbach's  $\alpha$ )은 .92이었다.

## 7) 기타 인적상황 및 가족상황에 대한 변인들

기타 인적상황 및 가족상황에 대한 변인들로는 연구대상자인 남편과 부인의 연령, 교육수준, 출생순위와 결혼지속년수, 가계소득, 주관적인 사회계층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속년수, 가계소득은 개방형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출생순위는 맏이·독자, 중간자녀, 막내자녀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사회계층은 최하층 1점에서 최상층 7점까지의 범주를 갖도록 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하도록 작성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서울시에 거주하는 38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1994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다. 1994년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412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369쌍(73부:89.6%)이 회수되었는데 내용의 기재가 부실한 29쌍(58부)과 남편의 성장가족에서 親父가不在하였던 사례 12쌍(24부)을 제외한 328쌍(656부:79.6%)을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응답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ANOVA 분석 및 Scheffé검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범 주	남편(N=328)		부인(N=328)	
		빈도(N)	백분율(%)	빈도(N)	백분율(%)
연 령	20대	8	2.4	34	10.4
	30대	130	39.6	154	47.0
	40대	120	36.6	103	31.4
	50대	62	18.9	35	10.7
	60세 이상	8	2.4	2	0.6
교육 수준	국졸이하	10	3.0	16	4.9
	중 졸	26	7.9	54	16.5
	고 졸	106	32.3	158	48.2
	대 졸	159	48.5	92	28.0
	대학원 이상	27	8.2	8	2.4
출생 순위	말이·독자	142	43.3	145	44.2
	중간자녀	136	41.5	133	40.5
	막내자녀	50	15.2	50	15.2
결혼 지속 년수	6년 미만	63	19.2		
	6년 이상-11년 미만	83	25.3		
	11년 이상-16년 미만	61	18.6		
	16년 이상-21년 미만	40	12.2		
	21년 이상-26년 미만	53	16.2		
	26년 이상	28	8.6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18	5.5		
	100-150만원 미만	81	24.7		
	150-200만원 미만	82	25.0		
	200-250만원 미만	71	21.6		
	250-300만원 미만	23	7.0		
	300만원 이상	53	16.2		
주관 적인 사회 계층	상 층	14	4.3		
	중상층	53	16.2		
	중 층	160	48.8		
	중하층	71	21.6		
	하 층	30	9.2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의 인지정도 및 그 차이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의 인지 정도와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인지정도 평균값은 각각 32.44와 32.35로 가능점수 범위(12-60)의 중간값인 36점보다 낮아 남편과 부인의 인지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의 인지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간의 인지정도가 어느정도 일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남편, 부인의 인지정도가 높지 않은 것은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과도기적 상황이 반영되어 한국 남편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유형인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이 실제로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제 규범의 영향으로 남편은 부인에게 행하는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당연시하여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부인들도 또한 아직까지 존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시각과 성차별교육으로 인하여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당연시하므로써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표 2>에서 남편과 부인의 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행위특성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각 행위특성에서의 남편과 부인의 인지정도는 가능점수범위(1-5)의 중간값인 3점보다 낮아 남편과 부인의 인지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인지차이는 1, 6, 7, 10, 12번 행위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 부인의 인지정도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남편은 자신이 부인의 실수를 따지는 것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인의 의견을 듣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고, 충고하는 이야기

를 많이 하는 것을 높게 인지하였다. 반면에 부인은 남편이 대화 시 의견차이가 있으면 일단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실수를 따지고, 부인의 의견보다 남편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것을 높게 인지하였다. 그러나 부인에게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 부인 모두에서 가장 낮게 인지되었다.

부부간의 인지차이를 살펴보면, 부부간 대화시 의견차이가 있을 때 남편이 일단은 부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융통성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부인에게 종종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 지시적인 말투로 이야기하고, 충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상으로, 남편은 부인의 주장을 먼저 들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부인의 실수를 따져 부부간의 의사소통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인의 의견도 존중하고 수렴하는 상호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남편이 화난 목소리, 지시적인 말투, 충고형의 이야기 같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측면을 부인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2.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 분류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은 부부의 인지정도에 기준하여 분류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편과 부인의 인지 평균점수(M)와 표준편차(SD)를 사용하여 높은 인지집단(높은 인지집단  $\geq M + SD$ ), 중간 인지집단( $M - SD < \text{중간 인지집단} < M + SD$ ), 낮은 인지집단(낮은 인지집단  $\leq M - SD$ )으로 각각 분류하였는데, <그림 1>과 같이 분류되었다.

인지 일치형은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I)이 34쌍,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V)이 167쌍, 부부 모두 낮은

〈표 2〉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의 인지정도 및 그 차이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남편자신의 인지 정도		부인의 인지 정도		Paired t-value
	M	SD	M	SD	
1. 부인과 대화할 때 의견차이가 있으면 일단 부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	2.74	1.00	2.99	1.02	-4.24***
2. 부인을 종종 비난하거나 탓한다.	2.63	1.02	2.64	1.05	- .22
3. 부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2.48	.87	2.57	.93	-1.60
4. 부인이 하는 말을 끝까지 주의깊게 듣지 않는 편이다.	2.52	.89	2.57	1.00	- .97
5. 부인의 의견을 듣기보다 나의 의견을 먼저 말한다.	2.95	1.02	2.83	1.04	1.86
6. 부인에게 종종 화난 목소리로 말한다.	2.92	1.06	2.75	1.09	2.79**
7. 부인과 대화할 때 지시적인 말투로 이야기 한다.	2.77	1.02	2.64	1.06	2.16*
8. 부인과 대화시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한다.	2.59	.96	2.49	1.02	1.72
9. 부인에게 냉담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2.29	.88	2.30	.91	- .17
10. 부인에게 융통성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다.	2.67	.90	2.82	.99	-2.53*
11. 부인의 실수를 따진다.	2.97	.95	2.96	1.03	.19
12. 부인에게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2.93	.97	2.80	1.01	2.17*
전 체	32.44	6.88	32.35	7.83	.27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일치형(IX)이 26쌍이며, 이 중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이 50.9%로 조사대상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지 불일치형은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IV+VII+VIII)이 51쌍,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II+III+VI)이 50쌍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남편이 '고'이고 부인이 '저'인 집단(VII)은 없었고, 남편이 '저'이고 부인이 '고'인 집단(III)도 2쌍으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인지일치형(I+V+IX)이 227쌍(69.2%)으로 전체의 2/3이상이나, 대개 중간수준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부부 모두 낮게 인지하는 바람직한 유형은 겨우 26쌍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인지불일치형(II+III+IV+VI+VII+VIII)인 경우는 101쌍(30.8%)으로 나타났는데 불일치의 차이가 더욱 큰 III과 VII의 유형비율은 지극히 낮다.

이와같이 전체의 2/3이상이 인지일치형인 것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대부분 고졸, 대졸로 높음을 감안해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정용재, 1985),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부부상호간의 의견일치도가 높아(박경자, 1981; 이정순, 1982) 부부간의 인지가 대부분 일치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인지일치형 중에서도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이 가장 많은 것은 수



		남 편		
		고	중	저
부 인	고	I 34쌍 (10.4%)	II 26쌍 (7.9%)	III 2쌍 (0.6%)
	중	IV 25쌍 (7.6%)	V 167쌍 (50.9%)	VI 22쌍 (6.7%)
	저	VII 0	VIII 26쌍 (7.9%)	IX 26쌍 (7.9%)

〈그림 1〉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 분류 (N=328쌍)

직적 부부관계에서 동반자적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과도기적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에 따른 개인적, 부부간, 가족환경적 변인들의 차이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에 따라 개인적, 부부간, 가족환경적 변인들의 차이를 ANOVA분석 및 Scheffé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먼저 ANOVA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의 5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편의 교육수준(P<.05), 남편의 출생순위(P<.05), 남편의 자아존중감(P<.001), 남편의 소외감(P<.001), 남편의 성역할태도(P<.001), 부인의 자아존중감(P<.001), 부인의 소외감(P<.001), 부부간의 의사결정권(P<.001), 가계소득(P<.001), 주관적인 사회계층(P<.01),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P<.001)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었다.

이중 몇몇 변인들은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과 부

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었는데, 즉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교육수준,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 남편과 부인의 소외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서의 남편주도,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교육수준,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남편과 부인의 소외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서의 남편주도,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남편의 출생순위는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에서 다른 유형들보다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 가장 낮았다.

가계소득은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 다른 유형들보다 가장 높았고,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각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Scheffé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은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과 남편의 소외감, 부인의 소외감,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차이가 있고,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과는 남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소외감, 남편의 성역할태도, 부인의 자아존중감, 부인의 소외감,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가계소득, 주관적인 사회계층,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차이가 있고,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과는 부인의 소외감,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이 차이가 있으며,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과는 남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소외감, 남편의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남편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고, 소외감이 크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인의 경우도 자아존중감이 낮고, 소외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유형에서는 남편주도적 의사결정이 많

〈표 3〉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에 따른 개인적, 부부간, 가족환경적 변인들의 차이 (N=328쌍)

변인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 (N=34쌍)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 (N=167쌍)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 (N=26쌍)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 (N=51쌍)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 (N=50쌍)	F
		M	M	M	M	M	
개 인 적 변 인	연령	43.500	41.970	42.423	41.980	42.640	.275
	교육수준	12.618	13.539	14.615	14.216	14.280	2.769*
	출생순위	1.735	1.731	1.423	1.941	1.600	2.781*
	자이존중감	25.559 A	28.234 AB	31.308 B	27.431 A	29.360 B	6.035 ***
	소외감	34.412 A	30.084 BC	25.500 D	32.000 AB	28.260 CD	12.722 ***
	성역할태도	27.088 A	25.359 AB	22.462 C	24.510 AC	24.280 BC	5.656 ***
부 부 간 의 변 인	연령	39.353	38.527	39.231	39.000	39.940	.339
	교육수준	11.677	12.144	13.423	12.392	12.140	1.667
	출생순위	1.588	1.725	1.654	1.745	1.740	.353
	자이존중감	24.412 A	26.228 A	30.192 B	27.510 AB	25.220 A	7.448 ***
	소외감	35.559 A	31.228 B	26.539 C	31.196 B	32.580 AB	10.999 ***
	성역할태도	23.353	22.725	20.654	23.275	23.040	1.841
부 부 간 의 변 인	결혼지속년수	172.088	158.437	167.308	165.255	181.360	.535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24.677 A	21.353 B	20.539 B	21.275 B	21.620 B	5.664 ***
가 족 환 경 적 변 인	가계소득	191.912 A	184.539 A	275.577 B	194.078 A	192.560 A	4.906 ***
	주관적인 사회계층	3.265 A	3.802 AB	4.308 B	3.843 AB	3.960 AB	4.193 **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	53.677 A	47.455 B	40.192 C	49.255 AB	45.720 BC	7.108 ***

\* P<.05    \*\* P<.01    \*\*\* P<.001

⊙ 출생순위: 맏이·독자=1점, 중간자녀=2점, 막내자녀=3점

⊙ 결혼지속년수는 총 개월수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이 이루어지고, 성장가족에서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은 남편 또는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과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과는 남편의 소외감, 남편의 성역할태도, 부인의 자아존중감, 부인의 소외감, 가계소득,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차이가 있다.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은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과 남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소외감, 부인의 소외감, 가계소득,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차이가 있고,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과는 부인의 자아존중감, 부인의 소외감, 가계소득이 차이가 있다.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과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간에는 남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소외감이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이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보다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소외감이 크다.

한편 각 집단간에서 남편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출생순위의 차이는 보수적 검증방법인 Scheffé검증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남편과 부인의 자아존중감과 소외감, 남편의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의사결정권,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의 긍정적인 측면은 실제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낮고(서수경, 1988; 류경희, 1994),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서의 남편주도,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이 많을수록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정도가 높았으며(류경희, 1994),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더 높은 정도의 권위주의를 나타내고 있다(문기춘, 1987)는 선행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현상에 대해 부부간의 인지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 부부 어느 한쪽만이 아닌 모두에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낮게 인지하는 일치형이 가장 바람직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부부 모두 낮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소외감을 극복하며,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주도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의 인지정도는 그 평균이 남편 32.44, 부인 32.35로 높지 않으며, 부부간의 인지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서 부부간에 어느정도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분화된 행위특성에서 남편은 자신이 부인의 실수를 따지는 것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인은 남편이 대화 시 의견차이가 있으면 일단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부간 대화시 의견차이가 있을 때 남편이 일단은 부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융통성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편이 부인에게 종종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 지시적인 말투로 이야기하고, 충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은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34쌍), 부부 모두 중간 일치형(167쌍),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26쌍), 남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51쌍), 부인이 높게 인지하는 불일치형(50쌍)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부부간의 인지유형에 따른 개인적, 부부간, 가족환경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남편의 교육수준( $P < .05$ ), 남편의 출생순위( $P < .05$ ), 남편의 자아존중감( $P < .001$ ),

남편의 소외감(P<.001), 남편의 성역할태도(P<.001), 부인의 자아존중감(P<.001), 부인의 소외감(P<.001), 부부간의 의사결정권(P<.001), 가계소득(P<.001), 주관적인 사회계층(P<.01),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P<.0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중 몇몇 변인들은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과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었는데, 즉 부부 모두 높은 일치형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교육수준,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 남편과 부인의 소외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서의 남편주도,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아존중감, 남편의 교육수준, 주관적인 사회계층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 남편과 부인의 소외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에서의 남편주도, 남편 親父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변화지향의 장애요인이 되는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몇몇 행동특성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해 남편과 부인의 인지가 불일치되는 경우보다 일치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불일치하는 부부도 상당수 있다. 그리고 인지가 일치된 부부경우에도 낮은 수준보다 대부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부부 상호간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아울러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이 평등한 부부관계를 저해하는 요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유형들에 비해 부부 모두 낮은 일치형에서 바람직한 심리적 특성, 의사결정 방법, 성장가족환경을 보이므로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소외감을 극복하여야 하며, 남편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융통성있게 공유하고 수용하는 성역할

태도와 부인을 대등한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동의사결정 태도를 지녀야 하겠다.

종합하면,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의 개인적 노력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부부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적인 부부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참고 문헌】

- 1) 고영복.(1991). 한국사회의 구조와 의식.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2) 김은심.(1988).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부인의 정신·신체증상 호소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재은.(1968). 권위주의와 아동의 행동. 교육학연구 6(2), 5-11.
- 4) ———.(1988).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문헌 및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5) 도미향.(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류경희.(1994). 남편의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 관점에서의 관련변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문기춘.(1987). 소외가 권위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박경자.(1981).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서수경.(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송성자.(1985). 한국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원효중.(1984). 부부간의 의사소통 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 12) 유영주.(1994). 미래의 가정-한국가정의 현재와 미래-. 미래사회와 가정 「세계 가정의 해」기념학술대회. 대한가정학회.
  - 13) 이광규.(1982).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 14) 이정순.(1982).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일 연구-일치도와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75-189.
  - 16) 이창숙.(1988).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23.
  - 17) 정용재.(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 의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채수옥.(1986).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이 주부의 신경증 경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한경혜.(1994).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열린사회와 가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한국여성개발원.
  - 20) Adorno, T.W., Frenkel-Brunswik, Else, Levinson, D.J., and Sanford, R.N.(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Harper & Row.
  - 21) Araj, S.K.(1977). Husbands' and wives' attitude-behavior congruence on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Vol.39), 309-320.
  - 22) Bernard, J.(1976). Change and stability in sex-role norms and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Vol. 32), 207-223.
  - 23) Blood & Wolfe, D.M.(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New York:Free Press.
  - 24) Boshier, R.(196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conservatis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7, pp 139-140.
  - 25) Champney, H.(1939). Measurement of parent behavior as a Part of the child's environment. Docto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26) Christie, R. & Marie Jahoda,(1954). *Studies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Free Press.
  - 27) Hawkins, J.L., Weisberg, C. and Ray, D.L.(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Vol.38), 479-490.
  - 28) Larsen, Knud, S, et al,(1969). Authoritarianism, self esteem and insecurity. *Psychological Reports* (Vol.25), 229-230.
  - 29) Osmond, M.W., & Martin, P.Y.(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7), 744-758.
  - 30)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1) 小林久高.(1989). 權威主義・保守主義・革新主義. *社會學平論* 39(4), 392-405.
  - 32) 曾良中清司.(1983). 權威主義의 人間. 東京:有斐閣.